



제니스의 범중화권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출시 행사

2019 년 9 월 17 일 중국 상하이: 바젤월드 2019 의 대규모 행사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가 이제 범중화권을 찾아간다. 기계식 손목시계 크로노미터의 지평을 넓히고 시계의 심장부로 알려진 제어기관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발명하여 만든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는 제니스 공방 신세대 오실레이터의 출발을 알린다.

적절한 주파수로 시작

줄리앵 토나르 제니스 최고경영자와 브랜드 홍보대사 천이쑤이 참석한 강력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VIP 고객들과 파트너들은 하이 프리퀀시 파티에 참가하여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범중화권 출시를 축하하였다. 먼 미래에서 온 듯한 초현대식 하이테크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LED 라이트와 영상물을 활용한 무빙아트와 경쾌한 음악이 제니스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보다 더 빠르고, 엿지있고, 다이내믹한 제니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이벤트는 또한 <Time to Reach Your Star(당신의 별에 도달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제니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1865 년 창사 이래 끊임없이 탁월성을 추구해 온 제니스는 제니스 상표로 발매된 사상최초의 “파일럿 워치”와 사상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티 Primero(엘 프리메로) 등, 여러 번에 걸쳐 세계 최초의 혁신을 선보인 바 있다. 제니스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Time to Reach Your Star(당신의 별에 도달할 시간)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선구자를 일깨워 모든 역경을 뚫고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범중화권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이는 바로 중국 대중들에게 <가신(歌神)>이라는 별칭으로 사랑받는 재능 만점의 고성과자 천이쑤이다. 천이쑤이는 리듬, 템포, 피치, 감정을 능란하게 조절하며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태도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고 여러 주요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그의 조직적인 접근방식, 단연 도시적인 어필, 언제나 청년의 마인드를 유지하는 “스타트업 정신” 등은 제니스의 현대적인 애틀튜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별에 도달하기 위해 뛰어오른 이의 성취를 대변하고 있다.

혁신의 내부

사상최초의 고주파수인 18Hz(대부분의 시계는 4Hz 이나 그 이하)로 박동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놀라운 성능의 비밀은 바로 제니스 공방이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획기적인 기술인, 단일부품으로 이루어진 제니스 오실레이터(Zenith Oscillator)이다. 한 덩어리의 소재를 깎아 만든 단일부품이 일반적인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약 30 개 정도의 부품을 대체함으로써, 지난 3 세기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던 스프링 밸런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10 개의 단일제작 제품으로 구성된 DEFY Lab(데피 랩) 시리즈에 처음 사용된 바 있는 이 혁명적인 부품을 더 한층 개선하여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에 장착함으로써, 이제 이 모델은 제니스 오실레이터(Zenith Oscillator)를 장착한 최초의 양산



시계가 되었다. 강력한 구조적 라인으로 구성된 아방가르드 케이스는 경량 티타늄과 혁신적인 알루미늄과 폴리머 합성소재인 에어로니스로 만들어 이런 미래지향적인 컨셉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범중화권만을 위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독점 모델

이번 출시 행사는 또한 다이아몬드 세팅 케이스와 투조세공 다이얼 중앙에 배치한 엔트라사이트 효과의 별 모양 부품에 제니스 오실레이터를 장착한 DEFY Inventor Greater China(데피 인벤터 그레이터 차이나) 에디션을 소개하기에 안성맞춤인 자리였다. 전통적인 워치메이킹과 재해석한 버전의 제어기관 및 다이아몬드의 시대를 초월하는 아우라를 결합한 이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버전은, 범중화권 제니스 부티크 및 리테일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독보적인 자체 개발 및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적 공정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실리콘 오실레이터가 장착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100 분의 1 초 단위 측정 고주파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등이 좋은 예이다. 1865 년 창사 이래 제니스는 항공의 초창기에 선보인 “파일럿 워치”와 사상 최초로 양산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와 혁신의 개념을 끊임없이 경신해 왔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제니스는 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전설의 새 장을 쓰고 있다. 제니스는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내고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대담한 이들과 함께,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